

작은 목회자
고린도전서 4:1-2

강태홍 목사님

왜 작은 목회자인가. 교회에서 말 안 듣고 뺨질대는 사람을 구역장을 시켜 보았다. 몇 달 해 보니까 목사님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더라. 구역장은 구역에서 목회하는 작은 목회자다.

서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출24:18-24, “네 지경을 넓히리라.”

(1) 무슨 지경인가? 영적 지경이다. 출24장에는 세 절기가 나오는데, 영적 지경은 근본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넓혀지는가? 유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단이 무너진다.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에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

(2) 두 번째는 경제의 지경을 넓히려는 것이다. 넓히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넓히시겠다고 했다. 구역장들이 수고하는 그 지역의 영적 지경과 함께 경제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했다. 이것은 회복이다. 수장절의 언약을 잡을 때 되어진다. 이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지는 것이다.

(3) 무슨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시는가? 육신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전이다. 뭘 할 때인가? 오순절 언약을 잡을 때다. 오순절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진다.

1. 하나님의 비밀

작은 목회자, 구역장 권찰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지경, 경제 지경, 육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어떻게 하면 되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4:1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작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 복음이다. 복음을 맡은 자다.

(1) 첫째가 그리스도다(행1:1).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다락방 하는 램넛트는 세 살 먹은 램넛트도 아니다.

②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이 뭐가? 내 손에 지금 분별이 있다. 그러나 이게 언제 분별이 되나? 칠판에 글씨를 쓸 때다. 분별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쓰레기일 뿐이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한다.

③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세상의 제일 큰 문제는 사단이 아니다. 내가 문제다.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힘든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시험에 드는가? 내가 중심이어서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꼭 알아야 한다. 내가 중심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2)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다(행1:3).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해야 하는가?

① 마음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천국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된다. 내 마음이 천국이여야 한다.

②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③ 교회에서도 교회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④ 직장과 사업장에도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램넛트들은 학업에도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비밀이 세 번째로 성령이다. 성령충만이다(행1:8).

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② 천사가 동원된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섬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또한 섬긴다. 히1:14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하심이 아니냐.”

③ 성령이 임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면 사단이 결박된다. 사단이 꺾인다. 교회 일, 세상 일, 특히 구역 일은 옆으로 가는 힘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위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내 힘,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역해야 승리할 수 있다.

2. 그리스도의 일꾼

작은 목회자는 사역을 하라고 했다.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 누구인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구역 식구들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내 기준, 내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해부터 해 줘라. 이해는 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해했으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배려해 줘라. 초신자가 와서 자기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 빨리 정착하게 된다. 배려는 여유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역장이고 권찰이지만, 섬겨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미래가 없으면 못 섬긴다. 그러면 뭘 할 것만 해야 하는가? 아니다.

(1)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

① 첫째로 가정예배를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이 다 가정예배를 드리실 것이다. 특히 어린 램넛트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꼭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 드릴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드려라. 예배의 축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린 램넛트들과 예배하는 분들은, 첫째로 길게 하지 마라. 길어야 15분, 10분이여야 한다. 길면 예배 대충 하고 안 하게 된다. 가정예배를 하는데 성경구절 한 구절씩만 암송시켜라. 성탄절에 램넛트들이 와서 성경암송을 하는데, 7살짜리가 요한복음 1, 2장을 하나도 안 틀리고 암송하더라. 부목사 아들인데, 매일 한절씩 암송시켰다고 한다. 나이 먹은 사람은 암송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램넛트는 잊지 않더라. 나는 성경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줬다. 그러니까 안 틀리고 잘 한다. 그게 램넛트다. 복음을 각인시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장 하고, 어린이 기도수첩이든 어른 기도수첩이든 한 번 읽어라. 길게 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도록 내버려 두라. 다만 이런 식으로 하라. 오늘은 아빠가 사회, 엄마가 기도, 내일은 엄마가 사회, 아들이 기도, 다음 날은 아들이 사회, 딸이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부모들도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꼭 가정예배를 가르쳐라.

② 공예배를 가르쳐야 한다. 공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그래서 그 구역이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누가 구역장이냐에 따라서 구역 성도들이 예배 성공, 실패를 다 볼 수 있게 된다. 예배에는 4요소가 있다.

1) 순서대로, 첫 번째는 찬송이다. 찬송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중심에서 우리나 찬송을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준비찬송이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찬미 자체가 예배다.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했다. 예배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해 보라.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찬양하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간다. 찬양하면 감옥의 문이 열린다. 찬양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가. 굉장히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입술만 달짝거리고, 한 번 더 하자 하면 짜증난다. 찬송부터 회복하라.

2) 둘째는 기도다. 아까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를 들으면 실패다. 그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응답받는다. ‘장로님 오늘 기도 좀 잘 하네? 좀 해 보셨나보네? 저분은 기도를 안 했네? 더듬거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실패다. 그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게 응답이 된다.

3) 셋째는 말씀이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 예배 실패다. 설교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언약인 줄 알고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예배 성공한다.

4) 그 다음이 헌금이다. 이 헌금은 헌금생활 지도 부분에서 더 이야기하겠다.

(2) 말씀포럼이다. 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해서 애를 많이 쓴다. 지금 각인전쟁이다.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그런데 말씀 각인을 위해서는 포럼이 중요하겠더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포럼하라고 조를 짜 줬더니,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고 가더라. 내가 그걸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포럼을 넣었다. 그랬더니 등록을 하려던 사람이 안 하고 가기도 했다. 그래도 해야 한다. 길게 못 하니깐 1분만 한다.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결단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한다. 여러분도 구역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들썩 들썩 포럼하라. 전체가 같이 포럼해도 좋다. 꼭 하라. 그리고 힘을 가지고 구역을 인도하면 안 된다. 구역 성도들의 내면을 살피려야 한다. 여러분, 손바닥이 여기 있다. 보이는가? 뭘로 보이는가? 이 손바닥은 눈으로 본다. 그런데 이 손바닥 뒤가 보이는가? 안 보인다. 그러나 이 손바닥 뒤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뭘로 보는가?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 구역 식구들의 생활, 삶, 안 되는 삶을 믿음으로 보고 기도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구역은 날로날로 부흥할 것이다. 말씀포럼을 꼭 예배 후에 하라.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말씀포럼을 하기 전에,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은 꼭 예배 전에 연락을 하지 않나? 그런데 예배 후에 말씀포럼 할 때 뭘 부탁해야 하는가 하면, 태신자다. 이것을 붙잡고, 말씀포럼 후에 기도해야 한다.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예배 후에 같이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사람을 한 사람씩 잡고 포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역이 틀림없이 배가될 것이다. 3배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3) 그 다음은 헌금생활이다. 이것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역장, 권찰들이 가르쳐야 한다. 다락방에는 4대 헌금이 있다.

① 첫째는 십일조다.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경제하고 직결된다. 헌금은 지출이 아니다. 헌금은 저축이다. 누가 그랬나? 예수님이 그러셨다. 마6:19-22에, “네 물질을 하늘 보물창고에 쌓아 두라. 거기는 썩이나 도적이 침범하지 못하느니라.” 하늘 보물창고에 저축해 두라는 말이다. 이것을 꼭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안 가르치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 나는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직분을 줬다. 나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도 되었다. 그런데 초신자 때 안 배운 것이, 장로가 되어서도 십일조를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십일조를 안 하면 평생 가난하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우리 증경총회 장남인 이재덕 목사님의 친구가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 교회 이야기를 내

가 들었다. 이분 교회는 십일조를 안 하면 목사님이 심방을 간다고 한다. 다음에 잘 하겠다든지, 형편이 안 된다든지, 못 하겠다든지 하면, '당신은 다음 주부터 우리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니까 한다. 깜짝 놀라지 않겠나? 그때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읽어준다고 한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틀림없이 저주를 받는데,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열의 교회 가서 저주받아라." 가겠나 안 가겠나. (웃음) 절대 안 간다고 한다. 초신자 빼고 신자의 95%가 십일조를 한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할 수가 없다. 구역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간증으로 전달해야 한다.

② 그 다음이 선교헌금이다.

③ 그 다음이 건축헌금이다.

④ 그 다음이 RUTC 헌금이다. 여기까지가 4대 헌금이다.

⑤ 나는 하나 더 해야 한다. 나 같은 놈이 구원받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감사헌금이다. 꼭 해야 한다. 목사님 중에서 보면, 아마 나하고 최정용 목사님이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할 것이다. 이 헌금은 매주 하라. 십일조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장사하는 분들은 매주 하라. 모아놓고 하려고 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 써 버린다. 그러니까 매주 하라. 그래서 십일조는 매달 하되, 나머지 헌금은 매주 하라.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담고 해야 한다. 주일날 와서 헌금봉투 찾기 말고, 토요일에 헌금을 담으면서 기도하라. 류목사님 모친 장권사님이 헌금할 돈을 다림질해서 드셨다고 한다. 다리면 만 원이 2만 원이 되나. (웃음) 나는 그분이 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금을 동정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십일조를 담으면서, "하나님, 열의 열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다만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밭의 황충을 제거해 주시고, 창고에 좀이나 도적이 들지 않아서, 물결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약속하셨으니 지켜 주십시오." 선교헌금, 돈 없으면 천 원이라도 하라. 봉투에 담고,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라. "하나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사는 동안 선교사 한 명은 파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파송할 만큼 힘을 주십시오." 천 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스운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세상 문화가 다 흑암문화입니다.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음 문화를 위한 예배당을 세워 주옵소서." 작정하고 하라. 다 했으면 또 작정하라. 흑암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꾸도록 건축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RUTC를 위해서. 참사랑교회에도 비전스쿨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라. 장학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미래를 약속하셨으니 미래를 위한 복을 내게 주옵소서." 감사헌금, "때마다 시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허둥지둥 헌금봉투 찾아서 돈 담지 마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 번 해 보라.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십일조 말고는 매주 하라. 왜 매주 하라고 하는가? 기도하라고. 적은 액수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우리 교회는 십일조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데 보면 참 못 산다.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계속 사기를 당한다. 아파서 병원에 갔다준다.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귀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심방을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부인은 십일조를 잘 하는 사람이다. 나오는데 침대에서 하는 말이다. "십일조를 떼먹었더니 돈이 더 들어가네." 다른 돈이 생겼는데, 이것을 두고는 십일조를 안 했던 모양이다. 뺏길까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다 해 놓고 딱 한 군데 시험하라 한 부분이 말3장, 십일조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창14장에서 아브라함이 벨기세벳에게 드렸던 것이고, 창28장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벳엘에서 잠들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전 재산인 기름을 거기에 붓고 서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십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벌고 나면 사단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야곱이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오다가 벳엘로 안 오고 세겜으로 갔다. 세겜에서 사는데,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서 이야기한다. 세겜이 와서 디나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할례 없는 자와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세겜 성 사람들을 다 설득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포경수술 아닌가?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해도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차돌을 깨서 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나?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다 쳐죽였다. 이 소문을 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야곱의 가문을 습격하려 한다. 겁이 나서 도망가는데, 그때에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벳엘로 올라가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다. 다 잘 하시겠네가 한 마디만 하겠다. "좋은 말 할 때 할례, 맞고 할례?" (웃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같은 성도, 구역장이 가르치면 시험에 안 드는데 목사님이 가르치면 시험에 들더라. 아니, 십일조가 신앙 때도 있나? 천만의 말씀이다. 마23:23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다. "너희들이 물질의 십일조는 잘 하면서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할 것이다." 십일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둘 다 하라는 것이다. 신앙시대는 10의 10을 다 드렸으니 십일조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꼭 알려줘야 한다.

3. 충성 : 개인화

마지막이다. 2절에,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작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은 충성이다. 충성하려면 개인화가 되어야 충성할 수 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 여러분과 상관이 있나 없나? 없다. 얼마나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찍혀있는 것만큼만 상관이 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것이 안 되어서다. 개인화가 안 되어서다. 그래서 개인화를 시켜야 한다.

(1) 첫째가 복음 개인화다. 복음 개인화는 40일 집중이다. 지역집중집회를 할 때 40일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다. 지금은 안 할 것이다. 지금도 하는 분이 있겠지만, 계속 해야 한다. 13가지들 다 하려면 힘들다. 그러나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① 첫째는 동영상 녹취다. 하루에 한 개씩 동영상 녹취를 해 보라. 토요일 저녁에는 지난주 목사님 동영상 녹취를 하면 된다. 기도수첩에 거기에 맞는 동영상 메시지를 다 올려주지 않나? 일 년 만 해 보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 상상치 못하도록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② 둘째는 구원의 길이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치면 나온다. 성경구절을 외워가면서 다 하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1년만 해 보라.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라. "목사님, 이상하게 나는 왜 자주 전도가 되어질까요?"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구원의 길은 5분만 하면 된다. 꼭 해야 한다.

③ 그리고 전도 스케줄이다. 내일 회사, 직장으로 갈 것 아닌가? 명하게 나가지 말고, 내일 몇 시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뭘 할 것인가를 써 보라. 쓰고 다니는 사람과 그냥 다니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다. 스케줄을 짜고,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전도와 연결시켜라. '아, 이 사람은 전도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10분 이상 만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구역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5명밖에 안 남는다. 10명으로 시작해서 10명 남아도 약하고 게으른 중이라 하시는데, 여러분이 10명을 20명으로 만들어야 착하고 충성된 자라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구역장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 죽어도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라. 참사랑교회가 내년에는 천 명 넘을 줄 믿는다. 이것 하면 여러분이 세 명 이상 교회화시키게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2) 기도 개인화다.

① 정시기도. 어차피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난다. 바쁘니까 30초만 기도하라. 그냥 깨지 말고 30초만 하라. 어차피 잔다. 잠자기 전에 1분 30초만 하라. 아침에 30초 했으니까, 낮에 돌아다니다가 짹 내서 1분만 하라. 그게 정시기도다. 뭘 해야 하는가? 300노트로 하라. 300노트 하고 계시는가. 교회 올 때 300노트 가지고 오시는가. 내 주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큰 홍수가 져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데 내 옆에 동아줄도 자 원도 다 있다. 던지기만 하면 사는데 뒷걸지고 휘파람 불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300노트 기도, 꼭 해야 한다.

② 무시기도, 24시 기도다. 모든 일, 사건, 사람, 다 전도와 연결시켜라. 기도와 연결시켜야 한다.

③ 집중기도, 25시 기도다. 일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기도 개인화다.

(3) 다음은 전도 개인화다. 1.3.3.1운동을 하라.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한 달에 세 명은 영접한다. 한 달에 세 명 이상 영접시키기. 한 달에 세 명 이상 하면 일 년에 세 명 정도는 교회화가 된다.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하루에 한 명 이상 복음제시를 하자. 안 하면 금식을 하자. 중요한 것은 전도가 내게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축복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다. 작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된 자로 개인화시켜야 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한다.

결론

(1)년부터 먼저 복음에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복음에 뿌리내 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그리고 기도가 각인되어야 한다. 내가 기도가 각인되어야 한다.

(3) 그 다음에, 전도가 체질화되어야 한다. 내가 전도의 체질이 되면 따라온다. 구역 식구들이 따라온다. 성도가 한 사람을 전도했다. 그 성도가 한 주일에 교회를 한 번 밖에 안 나오면 전도를 받은 사람도 한 주일에 한 번 밖에 안 나온다. 배워서.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오면 전도 받은 사람도 새벽기도를 나온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시시는 것이다. 2015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로 약속하셨다. 참사랑 성도들이 영적, 경제적, 육신적 지경이 넓혀지는 작은 목회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목자로 부르받았으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